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아담의 역사성

# 최근의 동향

- 아담은 없다 : Denis O. Lamoureux
- 원형적 인물 : John H. Walton
- 부족의 족장 : C. John Collins
- 이스라엘 : Peter Enns

# 원인

- 성경의 해석
- 과학의 영향

# Peter Enns

-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에 비추어볼 때 창세기 1-3장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유지될 수 없다.
- 창세기 1-3장은 포로기 후의 저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고대인의 세계인식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한 글이다.

## 영향 (2)

- 피터 엔스, 『아담의 진화』 (서울: CLC, 2014)
- 진화론적 사고에 지배 받는 현대의 시대 정신
-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교인과 목회자

# 1. Peter Enns의 아담 이해

# 1) 오경의 저자

- 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
- 오경은 포로기 후의 작품이다.

## 2) 창세기 1-11장과 신화

창세기 1장의 저자는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 (Enuma Elish)를 접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이스라엘의 정체를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 3) 아담과 이스라엘

아담은 포로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창작해낸 인물. 아담은 태초로 옮겨진 이스라엘.

## 2. 분석과 평가

## 2.1 오경의 저자와 저작시기

# 1) 이스라엘의 정체성 (3, 8)

- 멸망과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된 정체성의 뿌리
- 주전 8~7 세기 선지자들의 활동과 메시지의 근거

## 2) 역사적 배경: 언약관습 (9-10)

- 주전 2000년 후반 히타이트의 종주권 조약
-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소개된 언약

- 오경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증거들은 오히려 오경이 주전 이천 년 기에 모세가 기록한 글임을 입증한다.

## 2.2 창세기와 신화

# 설형문자 텍스트의 발견 (12-13)

- 1850년 니스웨의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텍스트들
-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
- 홍수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 구약학에 미친 영향

- 1902년 Friedrich Delitzsch 의 강연:  
“Babel und Bibel”(“바벨과 성경”)
- “성경-바벨-논쟁”(“Bibel-Babel-Streit”)
- “범-바빌론주의”(“Pan-Babylonismus”)

# 과거와 현재

- Anti-Semitism과 결합(F. Delitzsch)
- Evolutionism과 결합(Peter Enns)

# Enns의 두 가지 전제

- 고대성: 창세기보다 더 오래 됨
- 유사성: 공통의 문화적, 개념적 틀

# 1) 고대성의 문제

# Enuma Elish - Wilfred G. Lambert (13)

- 에누마 엘리쉬의 창작 년대는 주전 12세기
- 기존의 것에 여러 자료들을 덧붙인 “복합물”(compositum)
- 보존된 이유: 유행할 당시 도시관이 만들어졌기 때문

# 영향의 방향

“The point is that we are terribly ill-informed regarding the history of either Mesopotamian or biblical creation accounts. This makes the argument based on chronological sequence null and void. We cannot say for certain that the traditions preserved by the Israelites are any less ancient than the traditions preserved by the Babylonians.” – John H. Walton

2) 공통의 문화적, 개념적 틀:  
신화적 세계관

# Intersection - Peter Enns

신화적 세계관에서는 “원초의 시간”(primordial time)과 “현재의 시간”(present time)이 상호 교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이들 형성적인 원초의 신적 행위들(formative primordial divine actions)이 단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사건들 및 일상의 삶과 어떻게든 **교차하는** 것으로 믿었다. 예를 들면, 곡식들이 해마다 나고 죽는 것과 계절의 변화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원초적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고대의 예배는 사실상 원초적인 신의 행위와 현재 지상의 형편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기리는 일이었다.” – Peter Enns

# Determinism – B. S. Childs

신화는 현재사실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한 형식이다. 그것은 태고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신의 행위가 어떻게 현재 세계질서를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현재 세계질서는 제의를 통해 신화를 현실화(actualization)함으로써 유지된다.

# Continuity - John N. Oswalt

- 신화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간세계는 신들의 세계를 반영함
-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일치되어야 함
- 두 세계의 연결을 보장하는 수단: 신화를 이야기하고 신화의 내용을 제의(cult)로써 재현

“신화는 그 전체근거에 있어서 우주 만물이 서로 연속적이라는 생각에 의존한다. 더 나아가 신화는 그 연속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신들에 대한 신화적 묘사는 언제나 그들을 철저히, 더욱 더 인간으로 그린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약하다; 그들은 선하다; 그들은 나쁘다; 그들은 믿을 만하다; 그들은 변덕스럽다. 인간의 모습 그것이 곧 신들이다.” – John N. Oswalt

# 성경의 세계관 (16-17)

-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
-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 역사에 대한 관심 (17)

- 신화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은 “현상”(status quo)의 유지에 관심을 가짐
- 성경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은 “역사”(history)와 “종말”(end times)에 관심을 가짐

3) 바다의 괴물: 신화의 잔재?

# 시편 89:9-11

- 9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흘으셨나이다
-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총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 시편 74:13-15

-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 15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 Enns의 주장

“the cosmic battle in primordial time”

“원초의 시간에 있었던 우주적 전쟁”

# 창조신화와 창조기사

- 창조자 **Marduk**과 바다의 신 **Tiamat**
- 창조주 **Elohim**과 깊은 바다 **Tehom**

창세기의 **Tehom** 은  
에누마 엘리쉬의 **Tiamat**을 반영하는가?

Tiamat과 Tehom의 관계

## 언어적 차원 (23)

- 여성어미 **t**와 남성어미 **m** (W. Kaiser)
- 남성명사에 여성 어미의 첨가는 후대의 현상(A. Heidel)
- *thm*은 ‘바다’를 뜻하는 “공통의 셈족 언어”(K. Kitchen)
- 직접적인 연결을 찾을 수 없음

# 개념적 차원 (22-23)

- “바다” 또는 “큰 물”
- 신적인 존재 vs. 피조물의 하나
- 신화적 관점 vs. 사실적 관점
-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음

바다괴물 ‘라합’<sub>(18)</sub>



## 시편 87:4

“나는 라함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  
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 이사야 30: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앓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 이사야 51:9-10

- 9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  
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  
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  
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 시편 89:9-11

- 9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 (원수들)**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흠으셨나이다
-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총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방세력(애굽)을 가리키는 **메타포**

바다괴물 ‘리워야단’<sub>(19-20)</sub>

## 시편 74:13-14

-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 이사야 27: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 이사야 51:9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  
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 욥기 26:12-13

-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  
로 **날렵한(날랜) 뱀을 무찌르시나니**

- ‘리워야단’은 ‘라합’과 유사한 존재
- ‘리워야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방세력(애굽이나 바벨론)을 가리키는 **메타포**

## 4) 공창 위의 물

‘궁창’(라키아)의 의미 (23)

# 사전적 의미

- 명사 קִנֵּי --- “a solid dome”(BDB, HALAT)
- 동사 קָנַע --- “spread out”/ “beat out”

하늘의 물을 떠받치는 단단한 물체?

## 구약의 용례 (24)

- ‘하늘에 펼쳐진 구름’을 묘사하는 욥 37:18
- 하늘을 ‘펼쳐진 휘장’에 비기는 시편 104:2
- ‘넓게 펼쳐진 땅’을 묘사하는 사 42:5; 44:24; 시 136:6



**넓게 펼쳐진**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언어** (25)

‘공창 위의 물’이란?

## 의미의 유동성 (26)

- 해, 달, 별들이 있는 공간으로서 ‘궁창’(1:14-15)
-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궁창 위에는) 새가 날으라”(1:20)

“창세기 1장의 저자에게는 적어도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창 위와  
물이 있는 공간으로서 공창 위가 서로 모  
순되게 여겨지지 않았다.”

# 전치사구 ל + מעל (26)

- “같은 위치”(by or at)를 가리키는 경우
- 대하 26:19 **לְמִזְבֵּחַ הַקְּטָרֶת** מעל

## 욘기 26:6-10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뿜뿜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 장소적인 “위” (27)

관찰자의 시점에서 “구름”은 공창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공창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 잠언 8:28 (27)

“그가 위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깊음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실 때”



‘궁창 위의 물’이란 고대인의 신화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물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는 **비유적 언어**이다.

## 2.3 아담과 이스라엘

# 주요 이슈

- 구약에 아담의 타락에 대한 언급의 부족
- 아담 기사는 인류의 타락(원죄)에 대해 말하지 않음
- ‘아담’은 태고의 시대로 옮겨진 ‘이스라엘’

# 1) 구약 역사기록의 특성

# 구약의 기록 방식

구약은 죄의 기원과 해결에 관한 문제를 철학적, 신학적 논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다. 구약은 역사기술이란 매체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흐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추적하기에 기록자는 앞서 기술된 과거의 이야기를 거듭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아담 기사의 위치

- 구약의 시작부분 – 전략적 위치
- 후속하는 역사의 뿌리이자 전제

# 원복음(proto-evangelium)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 역사의 성격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뱀의 후손(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귀속된 자들)과 여인의 후손(뱀의 공격을 받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될 것이며, 이 투쟁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과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지만 결국 뱀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



# 투쟁의 역사


- 아벨과 가인
-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 교회와 세상
- 그리스도와 마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역사는  
아담의 범죄를 전제하고 있다.

## 2) 아담의 범죄와 원죄

# 범죄의 외적 결과

- 출산의 고통
- 땅의 저주
- 노동의 수고와 땀 흘림
- 육체의 죽음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해당됨

## 범죄의 **내적** 결과 (35-36)

- 눈이 밝아짐(내적 변화)
- 선악의 자율적인 판단
-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 영적인 죽음



# 구약성경의 증거

- 창세기 8:21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 신명기 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3. 결론

- 창세기 1-3장에 소개된 “아담”을 인류의 첫 조상이자 역사적 인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할 어떤 성경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은 ‘진화론’이란 성경 외적 사상을 무리하게 성경에 주입하는 ‘자의적 해석’의 결과물일 뿐이다.



# 과학이론과 성경

- 과학이론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사 40: 8 참조).
- 과학이론에 부합되는 성경해석을 모색하는 대신 성경저자의 의도에 충실한 성경해석을 꾀하여야 한다.

## G. Vos의 제안 (41)

“성경은 독자적으로 안으로부터 해석될 권리를 갖는다. 먼저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확정되고 난 다음 비로소 성경과 과학이 일치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